“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오늘은 어린이 · 청소년 주일입니다
  어린이사랑방과 푸른꿈사랑방에서 예배를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도보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멋쟁이 학교는 휴업입니다.
- 지난 주 서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 정이안 청년(늘푸른 사랑방)이 4일(월) 군 입대합니다.
- 5월 일정

03일 어린이 · 청소년 주일 / 10일 어버이 주일
17일 늘푸른 주관 예배 / 23일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바자회
24일 성령강림주일, 젊은이 주관 예배, 탁구대회 예선
31일 삼위일체주일, 자연예배, 탁구대회 결선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홍정길 장로 / 진정행 권사 (감사)
정혜라 집사 · 정보라 선생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농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18 호
2026년 5월 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어린 세대를 환대해주세요

어린이/청소년 주일입니다. 어린이사랑방과 푸른꿈사랑방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 다양한 역할을 맡은 날입니다. 예배 인도하기, 성경말씀 읽기, 성가대 찬양 부르기, 대표로 기도 드리기,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하기 등 여러 부분에서 아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설령 이미 여러번 해봤다 하더라도, 단상위에 올라서는 발걸음은 항상 무겁고 긴장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예배'를 위해 대표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떨리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 준비를 위한 리허설 연습까지 하게 됩니다. 단순히 예배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도 부끄럼없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준비과정을 도와주거나 지켜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예시로 어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마태 18장)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각을 바꿔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셨습니다. 하늘 나라의 필수 진입조건이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늘 나라에서의 권세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어린이들은 누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지 묻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자신이 낮은 사람임을 알고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즉, 높은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면 순수히 기뻐하며 넙죽받고, 싫으면 때때로 고집을 부리다가도, 이내는 꺾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름에 순수히 응하여 제자들 가운데 선 어린 아이가, 바로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의 예시가 되는 것이겠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뒷내용도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어린이를 귀하게 대접하고 사랑으로 환영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이가 귀한 존재임을,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행동임을 나타내는 이야기겠지요. 거기에 누군가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내 의견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의지를 대리하여 행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내 이름이나 위치, 성격, 관계성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면,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이자 사람을 만나는 방, 그리고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며 성장해나갑니다. 그런 와중에 그 분의 삶을 쫓아가는 어른들의 모습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삶에도 대물림이 될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어보여도, 유치하고 철딱서니 없어 보여도, 그들의 삶의 궤도에는 분명히 어른들이 준 사랑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세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삶의 방식들에 이끌리는 마음들에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낳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성장과 성숙의 단계라고 하지만, 어른도 정신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린이는 때론 유치하고, 그렇기에 어린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른들이 다시 되찾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움은 평생 끊이지 않는 것이겠지요. 새롭게 익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 두고 잊어버렸기에 되찾아야 할 배움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와 푸른꿈이 준비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속에서 다함께 낮아지고, 또 어린이들을 향한 환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
<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200 254 / 436
기도 :
성경 : 열왕기하 22장 1절-23장 30절
제목 : 요시야 왕의 율법책 발견과 종교개혁

1.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 지시와 율법책 발견 <왕하 22:3-13>
   1) 성전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였다.(What)
   2) 개인과 신앙공동체의 개혁의 힘은 성경에서 나온다.(Why)
   3) 성경을 꾸준히 읽자. 성서일기에 충실하자.(How)

2.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다 <왕하 23:1-14>
   1) 요시야 왕이 우상숭배를 철저히 제거하였다.(What)
   2) 종교개혁은 중심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Why)
   3) 나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을 제거하자.(How)

3.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다 <왕하 23:21-23>
   1)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기록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다.(What)
   2) 종교개혁의 방법 중 하나는 절기를 바로 지키는 것이다.(Why)
   3) 절기를 바로 지키자(삼대절기. 말씀 & 성례(세례-성찬)(How)

담을 수 있는 눈

안녕하세요. 푸른꿈 4학년 김가온 입니다. 주보를 처음 써봐서 실수가 있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문장을 적어 내려가 봅니다.

지난 4월 6일, 16시간의 장거리 비행 끝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미국은 한국보다 14시간이 느려, 한국이 화요일일 때 미국은 월요일이 되는 시차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차로 인해 일주일정도 고생 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첫날을 제외하고는 피로감 없이 하루하루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라라랜드 촬영지인 그린피스 천문대를 도시 야경을 보기 위해 갔었습니다. 그런 좋은 장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담기 위해 사람들은 사진을 찍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사진을 찍은 후에 사진을 보니 그 풍경을 전부 담지 못하더군요. 아쉬운 마음에 다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눈에는 그 풍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사진은 삭제하지 않으면 평생 남아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다시 기억을 되새길 수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완전하게 그 순간을 전부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그 순간을 보고 완전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직접 봐서 느낀 것을 흉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눈으로 본다는 것을 왜 당연하다고 느꼈을까? 라고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채로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눈을 부여하신 것에 감사하며 조용히 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기도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꿈사랑방 김가온 학생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최정원 푸른꿈
오전11시 설교자 : 정재훈 목 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시 편 36 : 7-9	인도자
* 예배의 찬송	64	다함께
* 기원의 기도		인도자
*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마태복음 26 : 28	인도자
*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205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대표기도)		정아인 푸른꿈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요한일서 1 : 1 - 10 최시원 푸른꿈
성가대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어린이·푸른꿈사랑방
설 교	" 우리가 만져 본 생명의 말씀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428	다함께
* 봉헌기도		김재준 푸른꿈
* 영광찬송	288(3)	다함께
* 위탁의 말씀		설교자
* 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최진용 김다온 최민용 서예준 / 봉헌위원 : 윤치후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만져 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본 '생명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중 마지막 생존자로서 진리를 증언하며,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빛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빛이십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사귐의 기쁨.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깊은 사귐(코이노니아)를 누리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속에 있습니다. 거룩한 사귐이 회복될 때, 영적인 생명력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한호남 집사

꾸러기학교

4월의 시작은 겨울의 모습이 많았다면 지금은 꽃과 잎이 세상을 덮어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한 달 사이에 놀라운 변화입니다. 두꺼웠던 옷이 가벼워지며 꾸러기들이 어디서나 활발하게 놉니다. 아름다운 봄은 꾸러기들이 신나게 놀기 좋은 계절입니다.

센싱 더 스토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라 아이들에게 무겁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아이들은 각자의 마음이 닿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으로는 생각나는 이야기를 나누며 그림을 그리고, 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내린 이야기가 많은 감동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잔치를 일찍 했습니다. 멋 부리는 날로 꾸러기들 모두 예쁜 공주님들이 되어 왔습니다. 드레스와 왕관, 요술봉, 장갑, 왕관, 반지로 꾸민 꾸러기들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공주님들이 실제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예쁜 공주님들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주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라집사님의 경운기 타기부터 높은 계단 점프 놀이, 비눗방울 놀이, 물을 사용하는 모래놀이 등 꾸러기들이 너무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목요일 어린이날을 맞아 따뜻하고 풍성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먼저 부모님들께서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예쁜 기능성 티셔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모두 같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 함께하는 모습이 더욱 정겹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요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스파게티로 정성껏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어린이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어린이날 선물로 15명의 어린이 각각에게 서로 다른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과일을 받기 전, 연상단어를 맞혀야 하는 작은 도전이 있었지만 '꽝' 없이 모두가 선물을 받아 더욱 기쁨이 컸습니다.

이후에는 부모님께서 선물해 주신 티셔츠를 입고 학생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체육대회인지 극기대회인지 헷갈릴 만큼 열정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표정에는 즐거움과 진지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멋을 내고 등교한 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멸치팀과 상어 팀으로 나뉘어 신나게 어울리며 하나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1학기 여행의 꽃. 도보여행을 다녀왔습니다. 4/27(월)-30(금)까지 철원 고석정에서 시작하여 연천과 동두천을 거쳐 양주 어화고개를 넘어 학교로 들어오는 약 110km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고생하러 가는 여행이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체력도 길러서 갔지만 매일 25km가 넘는 길은 말 그대로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성장도 반드시 있는 법. 멋쟁이들의 여행 후 소감을 들으니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참 멋쟁이가 되어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힘겨운 110km의 길을 완주했다는 이 경험은 멋쟁이 스스로에게 커다란 자긍심 심어 줄 것입니다.

함께 걸으며 서로를 격려했던 힘찬 응원의 외침과 힘들어 하는 친구의 손을 잡아주고, 가방을 받쳐주거나 대신 지고 가 주었던 섬김의 손길들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 힘겨워 지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 옹기종기 모여 앉아 손전등의 빛에 의지하여 함께 나누었던 식사는 멋쟁이가 학교를 넘어 한 식구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큰 사고 없이 모두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교사 : 장영미 >

사랑방의 공간 재구성을 목격하면서

지난 2월에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을 도우면서, 주보글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관 3층(흔히 2층으로 부르지만)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계부터 작업까지 저는 손끝 하나 대본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잔해들을 조금 옮긴 정도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신기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인지,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어느 공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추측해보기도 합니다.

골격이 세워지고, 방들의 구분이 명확해지면서는 나중에 그곳들에서 보낼 시간들의 이미지가 더욱 구체화 되는 듯 했습니다. 학생들과 수업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와 교인분들과도 함께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참 기뻤습니다. 큰 대가를 감수하고 진행하고 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 작업이기에 다른 의견이나 우려가 없진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릴만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묵묵히 먼지를 참아가며 작업하시는 식구들의 얼굴이 가장 많이 아른거립니다.

이 새롭게 변화된 공간을 향유할 때마다, 이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감내하신 분들이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설령 사람들은 모른다하여도,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까요, 아직 건축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벌써부터 기쁨의 마음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불편과 어수선함만이 아닌, 은혜로운 기류속에서 인도하심을 따랐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사랑방공동체에서 함께 있었다는 이 은혜에 감사의 기억을 남겨보고 싶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430장, 208장
성 경 : 역대지하 16장 1절~10절
말 씀 : 처음 믿음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전쟁의 공포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계속되는 전쟁 속에 가족을 잃고, 죽음을 목격하고, 직접 다치고, 반복되는 폭력에 놓인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쟁의 위협과 공포속에 몸과 마음을 다쳤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어리고 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개척자들을 위해>
올 해 9월 팔레스타인 지역에 평화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위험한 곳곳에 평화를 위해 애쓰는 개척자들 위에 하나님의 살피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1) 도보여행 중에 있는 멋쟁이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2)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 생활공동체 소식 >

이제 진짜 파종의 시기가 왔습니다. 밭을 갈고 고랑을 만들어 본격적인 농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쉼도 잊고 농사일과 정원가꾸기, 육각정 세우기등 공동식구들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관 증축 공사도 계속 진행되면서 내부도 정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서로 마음과 힘을 모아 풍성한 공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